

#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4.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2

## I. 일반개황

면적	447천 km <sup>2</sup>	G D P	568억 달러 (2013년)
인구	30.20 백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1,880달러 (2013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Som
대외정책	서방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 러시아의 영향력 축소	환율(달러당)	2,096 (2013년)

-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3,020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시장이자 지리적 요충지로서 천연가스(1.1조 m<sup>3</sup>), 원유(6억 배럴), 우라늄(6만 5,600톤), 금(1,700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1991년 독립 이후 독재 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정책에 의해 전국적인 소요가능성은 낮음. 장기집권 중인 카리모프(I. Karimov) 대통령이 고령임을 감안 시 후계구도와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음.
- NATO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며, 최근 미국과 EU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중국과도 에너지 부문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 협력국인 러시아의 영향력은 다소 위축되고 있음.
- 남부 키르기즈 내 우즈베키스탄 독립령에서 민족분쟁이 발생하는 등 인접국가와 국경획정 문제 등을 놓고 긴장관계에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반군과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 등 잠재적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sup>e</sup>	2014 <sup>f</sup>
경제성장률	8.5	8.3	8.2	8.0	6.9
재정수지 / GDP	0.3	0.1	0.1	0.4	-1.2
소비자물가상승률	12.1	13.3	11.0	7.2	11.7

자료: EIU

#### □ 주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출확대, 정부투자 증대로 양호한 경제성장세 지속

- 에너지, 면화, 금 등 주로 1차 산업이 발달하였음.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근로자 송금유입, 산업다각화를 위한 정부투자 등에 힘입어 최근 5년간 8%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함.
- 2012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여파에도 불구하고 고정투자 증가로 8.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역시 민간소비,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증가 등으로 8.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와 금과 면화의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재정지출의 증가,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 등 정부투자 지속으로 6.9%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 국방비, 선심성 정부지출 증가로 2014년 재정수지 적자 전환 전망

-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통해 재정수지는 소폭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2012년에도 높은 경제성장률,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0.1%의 흑자를 기록했음.

- 2013년에는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 추진, 선심성 사회보장 지출 등 지속적인 재정지출 수요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 천연가스 수출 증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GDP 대비 0.4%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함.
  - 2014년에는 NATO 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관련한 국방 및 치안비용 부담증가, 선심성 정부지출 증가 등에 따라 GDP 대비 -1.2%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수입품 가격 상승, 휘발유가 인상 등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1.7% 전망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식료품과 소비재에 대한 가격통제를 통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억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2012년에는 주요 곡물수입국인 카자흐스탄의 작황 부진에 따른 식료품 가격상승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으로 11.0%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13년에는 통화공급 확대, 최저임금 및 연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곡물작황 개선에 힘입어 7.2%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2014년에는 물가상승 압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식료품 및 소비재 가격 통제에도 불구하고, 숨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 정부보조금 감축에 따른 휘발유가 인상 등으로 11.7%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구조 지속
- 에너지, 면화, 금 등 1차 산업의 수출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1~15년 산업발전 계획 등을 통해 산업다각화 및 현대화를 추진 중임.
  -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특정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함. 하지만, 제조업 분야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수출시장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수출대상국 비중: 중국(21.2%), 카자흐스탄(15.9%), 러시아(14.7%)

#### □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규제로 인해 금융산업 낙후

- 은행업을 제외한 증권, 보험 등의 금융시장은 발달 수준이 저조함.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제 및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은행이 정부정책의 이행기관이자 기업 감시자의 역할도 하고 있음.
- 정부의 과도한 외환 통제로 현지화의 외화환전에 통상 6~12개월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수출입 및 투자기업들은 제품 및 원부자재 수입, 결제대금확보, 과실송금 등에 애로를 겪고 있음.
  - IMF는 무역 및 결제시스템 자유화, 보다 유연한 환율제 채택 등 은행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나, 2003년 숨화의 완전대환 보장을 선언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강력한 외환통제가 지속되는 등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불안정한 기업경영 환경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제약

-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로의 전환 이후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 및 산업 각 부문에 대통령 측근들의 이권 참여와 부정 부패가 계속되었음.
- 열악한 기업경영 환경, 높은 수입관세 부과 및 외환통제 등 민간부문 영업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가 많아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3년 2월 정부는 외환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달러구매 시 국내거주인의 현금결제를 제한하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결제카드를 통한 대금 결제만 가능토록 하는 달러 암시장 양성화 방안을 내놓음.

### 나. 성장 잠재력

#### □ 천연가스, 원유, 우라늄 등 풍부한 부존자원 보유

- 천연가스(1.1조 m<sup>3</sup>), 원유(6억 배럴), 우라늄(6만 5,600톤), 금(1,700톤) 등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자원수출을 통한 자생력을 보유하고 있음.

- 천연가스과 원유는 주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히바(Bukhara-Khiva), 우스투르트(Ustyurt), 수르한다리아(Surkhandarya), 페르가나(Fergana) 지역 등에 매장되어 있음.

####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시장확대 가능성

- 우즈베키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키르기즈,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인근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 지역까지도 시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 인구 3,020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시장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저임금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노동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계층이 전체인구 중 68.3%로 높은 편임.

### 다. 정책성과

#### □ 원유 정제, 기계 및 자동차 등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구조 개선 추진

- 2011~15년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을 통해 총 473억 달러 규모의 51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이 중 유망분야인 원유 및 천연가스 가공 및 개발이 60% 이상을 차지함.
- 동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5년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는 2010년 기준 산업생산의 38%를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6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원유, 천연가스 정제 및 개발 분야 외에 투자유치 유망분야는 기계 및 자동차, 의약 및 바이오, 화학, 식품가공, 전기전자 산업 등임.

#### □ 과실송금 보장 등 투자환경 개선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8년 12월 대통령령으로 나보이 공항을 물류허브로 개발하고 이곳에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Free Industrial and Economic Zone)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2년 4월에는 안그렌 특별산업단지(SIZ: Special Industrial Zone), 2013년 3월에는 지작 특별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하는 등 국내외 투자유치 및 지역산업 발전,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2년 4월 10일 대통령령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12월에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주규제 완화, 사업등록 절차 간소화, 과실송금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음.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sup>e</sup>	2014 <sup>f</sup>
경 상 수 지	2,407	2,624	1,383	1,339	1,164
경 상 수 지 / G D P	6.2	5.8	2.7	2.4	1.9
상 품 수 지	3,005	3,367	1,561	1,402	673
수 출	10,978	13,204	12,202	12,832	13,233
수 입	7,973	9,837	10,641	11,430	12,560
외 환 보 유 액	11,024	13,533	13,939	14,940	..
총 외 채 잔 액	7,741	8,380	8,958	9,673	10,468
총 외 채 잔 액 / G D P	19.9	18.5	17.5	17.1	17.1
D S R	3.5	3.0	5.0	2.9	2.8

자료: EIU, OECD.

#### □ 상품수지 흑자는 금과 면화가격 하락으로 최근 감소 추세

- 상품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요 수출품인 금과 면화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소비재와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설비 등 수입 증가로 최근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2012년에는 금과 면화가격의 상승세 둔화,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의 경제 성장세 둔화, 설비·자재·부품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가 15.6억 달러로 급감하였음.
- 2013년에는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금과 면화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14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에는 금과 면화의 국제가격 하락 지속으로 상품수지는 6.7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상품수지 흑자 규모 축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감소 추세

- 상품수지는 흑자 기조이나, 취약한 서비스산업 경쟁력으로 인해 서비스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다만, 상품수지의 비중이 커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역시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13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은 동 비율이 상품수지 흑자 축소로 1.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으로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 둔화

- 우즈베키스탄의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다만 최근 들어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숭화가치 하락방어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013년 기준 9.9개월 분으로 최근 감소 추세이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총외채잔액 규모는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17.1%로 낮은 수준

- 금융시장의 발달 수준이 낮은 우즈베키스탄은 외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의존하여 총외채잔액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인해 경제규모 대비 외채잔액 규모는 양호한 수준임.
  - 총외채잔액은 2012년 89.6억 달러에서 2013년 96.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높은 경제성장세로 인한 GDP 증가로 2013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전년과 비슷한 17.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13년 기준 4.0%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2010년 이후 3~5%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2014년에도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Ⅲ. 정치·사회 동향

#### 1. 정치안정

##### □ 카리모프 대통령 장기집권체제 지속 중이나 후계구도가 불투명한 점은 불안요소

- 1991년 이후 장기집권 중인 카리모프 대통령의 1인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카리모프 대통령이 75세의 고령이고 후계구도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정치적 불안요소임.
- 2015년 대선을 앞두고 현 대통령의 건강문제로 인한 불출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녀 굴나라 카리모바(Gulnara Karimova)를 비롯한 유력 대권후보들 간 후계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 2014년 12월 총선, 2015년 12월 대선 등 주요선거에서 현 정권 승리 예상

- 카리모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주요 정부 요직을 모두 지지자들로 선임했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으며, 정적들을 억압하고 국외로 축출해 현 정권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2014년 12월 총선과 2015년 대선 모두 이변이 없는 한 현 정권의 승리가 예상됨.
- 현 대통령이 2015년 차기대선에 출마할 경우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령의 나이를 감안 시 카리모바를 비롯한 유력 대권후보들에게 권력 이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확실한 후계자는 없는 상태임.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전국적인 소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카리모프 반대세력에 의한 테러 위협 잠재

-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카리모프 독재체제는 주도적인 반대세력 출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전국적인 차원의 소요 가능성은 거의 없음.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합법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의 저항은 증가할 수 있겠으나 공권력에 의해 신속히 진압될 가능성이 높음.
- 아프가니스탄, 북부 파키스탄에서 주로 활동하며, 최근 타지키스탄 등에서

영역을 강화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의 잠재적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테러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탄압은 향후 국민 불만을 일으켜 급진주의적 움직임을 가져올 가능성 있음.

\*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 카리모프 정권을 전복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장세력 연합체로 아프가니스탄, 북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음.

### 3. 국제관계

#### □ NATO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미국과 EU와의 관계는 점진적 개선

- 서방의 대 테러전략 및 지역안보전략 추진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과 EU와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됨.
- 특히, 2014년 NATO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이 자국을 경유하는 철수로를 봉쇄하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이 대안경로로 떠오르는 등 서방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 □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추세 속 러시아의 영향력은 다소 위축

- 중국은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총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에 서명한 바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증설을 통해 천연가스 연간 수출량을 2013년 100억 m<sup>3</sup>에서 2016년 250억 m<sup>3</sup> 규모로 늘릴 예정인 등 양국간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 6월 말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서 탈퇴하는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음. 하지만, 양국간 전통적인 우호관계,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영향력 위축에도 불구하고 협력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12월 러시아 에너지 기업 루코일은 향후 5년간 50억 달러 규모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

## □ 테러위협, 국경획정 분쟁 등으로 인한 인접국가와의 긴장 지속

- 2013년 1월 남부 키르기즈 내 우즈베키스탄 독립령인 소흐(Soh)에서 우즈베키스탄인과 키르기즈인 간 민족분쟁이 발생해, 소흐 주민들이 키르기즈 국경수비대 무기를 탈취하고 키르기즈인을 인질로 체포하는 사건 발생함.
- 동 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없으나, 2010년 6월에 발생한 키르기즈 유혈사태 이후 가장 큰 민족분쟁으로 동 지역은 국경 획정 문제로 인한 민족분규가 지속되는 등 키르기즈와의 긴장관계가 상존하고 있음.
-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인접국과 수도 및 에너지 공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아프가니스탄 내 반군 세력의 활동반경이 우즈베키스탄 국내로까지 확대될 위험도 있어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는 당분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양호한 수준의 채무상환 태도

- 우즈베키스탄은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인해 아직까지 총외채규모가 크지 않은 편으로, 면화, 금 등의 수출 수입으로 공적외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전반적인 채무상환 태도는 양호한 수준임.
- 우즈베키스탄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13년 말 기준 6.2% 수준으로 매우 낮음. 2013년 12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총 8.6억 달러(단기 0.8억 달러, 중장기 7.8억 달러)이며, 이 중 0.07%에 해당하는 60만 달러가 연체 중임.

### 2. 국제시장평가

#### □ 국가신용등급은 낮은 수준 유지

- OECD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신용등급을 2008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2014년 1월 OECD CRE(Country Risk Experts) 회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의존적 수출구조, 대통령 독재체제 지속 등을 반영하여 기존 6등급을 유지함.

- 3대 민간 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및 Fitch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주요 ECA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제한적 인수가능
- 영국 ECGD : 단기인수가능, 중기인수는 제한적 인수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수출입은행	D1 (2014. 4)	D1 (2013. 8)
OECD	6등급 (2014. 1)	6등급 (2013. 1)
S&P	-	-
Moody's	-	-
Fitch	-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1월 29일(북한과는 1992년 2월 7일)

□ 주요협정: 세관협력협정('99), 형사사범공조조약('03), 사회보장협정('05), 외교관 여권사증면제협정('09), 근로활동협정('11), 군사비밀보호협정, 관광협력협정(이상 '12)

□ 양국간 교역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 지속

-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3년 기준 20.2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섬.

- 자동차부품,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부분품 및 원·부자재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함. 우리나라는 주로 우라늄, 천연섬유사, 제지원료 등을 수입하고 있음.

## &lt;표 4&gt;

## 한·우즈베키스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1,719	1,767	1,968	자동차부품,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수 입	40	42	53	우라늄, 천연섬유사, 제지원료
합 계	1,759	1,809	2,021	

자료: 한국무역협회.

## □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 증가 추세

- 2013년 12월말 기준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 규모(누계기준)는 총 225건(신규법인수), 6.3억달러(투자금액)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등임.
-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하다, 최근 들어 제조업, 광업 부문 투자가 급감함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음.
  - 직접투자규모 추이: 3,274만 달러('09) → 4,073만 달러('10) → 5,496만 달러('11) → 1,896만 달러('12) → 1,395만 달러('13)

## V. 종합의견

- 민간소비,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증가 등으로 2013년 8.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6.9%의 양호한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면화, 금 등 1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발전 계획 등을 통해 산업다각화 및 현대화를 추진 중임.
- 카리모프 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총선·대선을 앞두고 후계구도가 불투명한 점은 정치적 불안요소로 작용함. 전국적인 차원의 소요 가능성은 없으나,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 등 잠재적 테러 위험이 있음.

- 에너지 수출을 통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낮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낮은 수준임을 볼 때 단기적인 유동성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김세진 (☎02-3779-5708)

E-mail: sejin0302@koreaexim.go.kr